"그릇된 인가를 구하지 말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㉓ 인파면문(印破面門)

"여러분, 제방의 큰스님들에게 인가를 받았다고 내세우며 '나는 선을 안다. 도를 안다' 하고 함부로 떠벌리지 말라. 말하는 솜씨가 아무리 그럴듯해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해도 지옥의 업을 짓는 것일 뿐이니라. 만약 참되고 올바르게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허물이 되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간절히 불법의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구해야 할 뿐이다.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가 원만하고 분명해졌다면 바야흐로 비로소 할 일을 마쳤다 할 것이니라."

선수행자들이 제방의 이름난 노숙(老宿)들을 찾아가 인가(認可)를 구하고 또 인가를 받는 사례들은 예로부터 많이 있었다. 인가는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자뻘 되는 사람이 공부해서 얻는 경지를 간파해 인정해 주는 것으로, 과거 선종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가가 확철대오(確徹大悟)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성숙되지 않은 공부를 잘못 인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참되고 올바른 것이 아닌 일종의 폐단이다.

임제는 이 장에서 이 점을 환기시킨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인가받았다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아는 척 깨달은 척하지 말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행자가 아만 따위의 상(相)이 붙어 어리석고 자신을 속이는 따위의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5계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는 조목이 제정된 동기가 깨닫지 못하고서 깨달은 척하는 증상만(增上慢)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자력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선문(禪門)에서 유독 정견을 강조해 왔다.

한문 원문의 '인파면문(印破面門)'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도장을 찍어 입을 부셔버린다는 말로 잘못 인가한다는 뜻이다. 수도자가 자칫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고 그릇된 사도(邪道)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대혜종고의 〈서장(書狀)〉에도 '냉각면피(冷却面皮)'라는 말이 나오는데 냉정하게 인정에 끌리지 않고 앞면을 몰수한다는 뜻이다. 방편 상에서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제시되지만, 불교의 목적 깨달음은 곧 정견에서 얻어지는 것이요 모든 수행도 정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임제의 선법을 계승하여 송대(宋代)에 들어와 간화선을 완성시켰다고 평가받는 대혜 선사가 16년간 귀양살이를 하였다. 물론 모함에 걸려들어 어처구니없는 유배를 당한 것이지만 그 이유가 간화선(看話禪)의 올바른 선법을 천명하기 위해서 묵조선(默照禪)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머리 깎은 외도들이 자기 눈을 밝히지 못한 채 남의 눈마저 멀게 한다.(剃頭外道 自眼不明 自誤他盲)"고 혹독하게 묵조배를 비판했던 것이다. 당시 사대부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간화선법을 지도하던 대혜가 자신이 머물던 경산(徑山寺)에서 시랑(侍郎)이었던 무진거사(無盡居士) 장구성(張九成)의 부친 재(齋)를 지내면서 영가(靈駕)법문을 하게 되었다. 법문 도중에 영가에게 게송을 설했는데 "神臂弓 一發에 射破千重甲이로다. 仔細拈來看호니 當甚臭皮襪이로다"였다. "신비한 팔로 활을 한 번 쏘니 천 겹의 갑옷이 뚫어지도다. 자세히 가져와 보니 냄새나는 가죽 버선이구나."

이 일이 있는 뒤 묵조편에 있던 진회(秦檜) 일당이 재자(齋者)였던 장구성이 부친의 재를 구실로 절에 모여 반역을 도모했다고 모함을 하여 당시 왕이던 고종에게 무고하여 장구성과 그 일파가 파직당하고 유배를 가게 되고, 대혜도 체탈도첩(褫奪度牒)을 당하여 형주(衡州)로 귀양을 갔다가 다시 매양(梅陽)으로 유배지를 옮겼다. 유배지에서도 사대부들과 교신을 하며 선의 정법을 선양하다 후에 장구성이 다시 복직 승상이 되자 대혜도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정법을 내세우다 겪은 법난(法難)이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반연진여선과 여래선은 종밀 최상승선



세상 속 경전읽기

㉓ 오종선(五種禪)

청화 스님의 법어집인 〈원통불법(圓通佛法)의 요체(要諦)〉 '제3장 수증과 공덕 제1절 참선' 에서, 선의 종류를 1. 외도선[外道禪. 인과(因果)를 불신(不信)하고 유루공덕(有漏功德)을 위하여 닦음], 2. 범부선[凡夫禪. 인과를 믿고 유위(有爲)공덕을 위하여 닦음], 3. 소승선[小乘禪. 아공(我空)을 믿고 해탈(解脫)을 위하여 닦음], 4. 대승선[大乘禪. 아공 및 법공(法空)을 믿고 해탈을 위하여 닦음], 5. 최상승선[最上乘禪. 본래부처로서 일체 무루공덕(無漏功德)이 원만히 구족함을 신해(信解)하고 닦는 선. 즉 여래선과 조사선]의 5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 이하 도서〉의 5종선(種禪)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중국 화엄종 제5조인 당(唐)의 규봉종밀[圭峰宗密 · 780년 ~ 841년, 이하 종밀]은 어려서부터 유교와 불교를 배우고, 6조 혜능 대사의 남돈선(南頓禪)을 계승한 도원(道圓) 선사를 만나 출가하였다. 〈원각경(圓覺經)〉에 정통하고 청량징관(淸凉澄觀)에게 화엄학을 배웠다. 821년부터 종남산(終南山) 규봉(圭峰) 초당사(草堂寺)에서 저술에 전념하면서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제창하였다.

종밀의 〈도서〉는 CE 857년 배휴[裴休 · 791~870]의 필사본이 전해지면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배휴의 필사본에 의거해, CE 955년 이후 계현(契玄)이 간행한 송판본[宋板本, 상하 2권본 〈도서〉의 모본(母本)]이 나왔다.

계현의 송판본은 10세기 말쯤 국내에 전래되어 유통되면서 1493년 화암사본(花岩寺本)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현존 판본이 이 송판본을 저본(底本)으로 한 것이다. 1303년 설당보인(雪堂普仁)이 간행한 4권 본 〈도서〉는 영락북장 본(永樂北藏本), 가흥장 본(嘉興藏本) 등 여러 단계와 변화를 거쳐, 명장 본(明藏本) 계통으로 변천하였다. 〈신수대장경〉의 〈도서〉는 상1, 상2, 하1, 하2로 나눈 명장 본(明藏本) 계통의 4권본이다.

종밀은 오종선 중 최상승선을 여래청정선(如來淸淨禪), 일행삼매(一行三昧), 진여삼매(眞如三昧)라고도 하며, 달마가 전한 것이라고 했다.

〈능가경〉의 4종선과 종밀의 5종선을 대비해보면, 〈능가경〉의 우부소행선은 '인무아[아공]'를 알고 닦는 것이니 종밀의 소승선에 해당하고, 관찰의선은 '법무아[법공]'를 알고 닦는 것이니 종밀의 대승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능가경〉의 반연진여선은 인무아나 법무아의 분별마저 떠나, 무아라는 마음조차 일으키지 않는 수행이며, 여래선은 붓다의 경지에 들어, 여러 중생을 위해 불가사의한 활동을 하는 수행이니 이 두 가지는 대략 종밀의 최상승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진성(眞性)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아 범부와 성인의 차별이 없으나, 선정(禪定)은 깊고 얕음이 있어 계급의 차등이 있다. 잘못 헤아려 위(천상)를 좋아하고 아래(지옥)를 싫어하여 닦는 것은 외도선(外道禪)이요, 인과를 바르게 믿으나 역시 좋고 싫은 마음을 내어 닦는 것은 범부선(凡夫禪)이며, 아공(我空)을 깨닫고 진리의 단편만을 의지해 닦는 것은 소승선(小乘禪)이요, 아공과 법공(法空)의 이공(二空)을 깨달아 진리를 드러내는 수행은 대승선(大乘禪)이다.

이상 4종의 선정에는 모두 4색계정[四色定]과 4무색계정[四無色定]의 차이가 있다. 만약 돈오하면, 자심(自心)이 본래 청정하여 원래 번뇌가 없으며, 무루지(無漏智)의 성품이 본래 갖추어 있으니, 이 마음이 곧 붓다여서 붓다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이를 의지하여 닦는 것이 최상승선(最上乘禪)이며, 또한 이를 여래청정선(如來淸淨禪), 일행삼매(一行三昧), 진여삼매(眞如三昧)라고도 하나니, 이것이 일체 삼매의 근본이 된다."

〈禪源諸詮集都序 T2015_.48.0399b11-20〉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㊾ 닦음의 길 9

바라밀, 피안으로 가는 길

〈彼岸〉

'파라미타', '바라밀', 불교와 관련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 모임으로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있고 '바라밀'이란 이름이 들어간 불교 합창단이나 선원, 요양원 등도 꽤 많이 보인다. 이 말이 불교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승불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바라밀이 그 향기를 온 사방에 널리 전하고 있는 셈이다.

바라밀(波羅蜜)이란 범어인 '파라미타(paramita)'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이다. 때로는 정확하게 옮긴다고 해서 바라밀다(波羅蜜多)라 부르기도 한다. 바라밀은 대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완성이고 다른 하나는 도피안(到彼岸), 즉 피안에 이른다는 뜻이다. 그런데 수행의 완성이 곧 피안에 이르는 것이므로 의미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차안(此岸)은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다. 바라밀이란 바로 번뇌의 차안에서 괴로움이 소멸되고 행복 가득한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이 완성되면 불교의 이상향,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 반야(般若), 즉 지혜라는 이름의 선장이 이끄는 배를 타야 한다. 사찰에 가면 간혹 법당 벽면에 반야용선(般若龍船)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 배가 바로 우리를 열반의 언덕으로 데려다주는 지혜의 용선이다. 이 배는 지혜(智慧)의 선장을 중심으로 보시(布施)와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이라는 특급 참모들이 힘을 합쳐 운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이 배는 대승호(大乘號)라 불리기도 한다. 소승(小乘)이 작은 배를 타고 혼자서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라면, 대승은 모든 사람이 손에 손 잡고 어깨동무 하면서 함께 가는 길이다.

그런데 바라밀은 완성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많은 실천 가운데 앞서 언급한 가진 것을 나누고 계율을 지키며, 욕됨을 참고 열심히 정진하며, 선정과 지혜를 닦는 여섯 가지를 6바라밀이라고 한다. 이는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실천체계로서 근본불교의 삼학(三學)이나 팔정도(八正道)와 같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육바라밀은 삼학이나 팔정도를 대승불교 입장에서 계승 또는 재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은 근본불교의 수행과 다르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8정도에서 다루지 않은 보시나 인욕 등과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행들을 보강하고 있다.

육바라밀 외에도 화엄(華嚴)에서는 방편(方便)과 원(願), 역(力), 지(智) 네 가지를 더한 10바라밀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보살이 지혜를 얻고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행이다. 먼저 방편은 중생들의 근기를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며, 원은 열심히 정진하여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간절한 바람이다. 이러한 서원(誓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행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역바라밀이다. 마지막은 지바라밀이다. 여섯 번째 반야바라밀이 무분별지(無分別智), 즉 모든 분별이 끊어진 바라밀이라면, 열 번째 지바라밀은 무분별지를 생활 속에서 살려내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산과 물의 분별이 모두 소멸된 지혜가 반야바라밀이라면 산과 물의 분별이 현실에서 살려지는 지혜가 지바라밀이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 산과 물은 연기적으로 '하나'지만, 등산을 하려면 산으로 가고 수영을 하려면 바다에 가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이를 '무분별의 분별'이라 부르기도 한다.

육바라밀은 대승호의 수장인 지혜가 수행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숙성이 잘 되어야 보시와 인욕 등의 수행이 잘 실천될 수 있다. 반대로 나머지 바라밀을 잘 실천하면 그에 따라 지혜 역시 더욱 깊어지게 된다. 피안으로 가는 길에서 지혜의 선장과 다섯 참모의 조화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